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

이 책은 무신년(戊申年)에 일어났던 의병활동을 기록한 책으로 그에 가담했던 대장과 참모 등에 대해 적고 있다.

서명	戊申倡義錄
한글서명	무신창의록
대표서명	권수제(권두서명)에 의함
표지제한글(한자)	
편저자한글(한자)	정조(正祖(朝鮮第 22 代王)命編)
간행년(서기력)	1874-1874
간행년(왕력)	高宗 11(1874)
간행처	미상
언어	한문
판사항	木板本
종이재질	
형태서지	5 卷 2 冊: 四周쌍邊, 半郭 23 × 17 cm, 10 行 20 字, 上下二葉花紋魚尾, ; 30.8 × 21.1 cm
내용주기	
인기	
청구기호	B6B^137
등록번호	44022077v1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MF	MF35-9382
주제분류	

1728년(영조 4) 戊申亂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에서 기병한 의병들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

1874년 경상도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인 간행 주체는 확인할 수 없다.

난이 일어난지 60년 후인 1788년(정조 12)에 정조가 안동의 의병장 柳升鉉과 權萬에게 관작을 내리고 그 때의 사적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 등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李鎭東이 도내의 인사들과 더불어 각읍의 의병에 대한 기록을 모아 1책으로 편집한 후 국왕에게 바쳤다.

국왕은 대신의 논의를 거쳐 그 책을 경상도에서 간행하게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세기 말에 이르러 간행된 것이다.

이진동이 원래 편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가 정조에게 책을 바치고 조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덧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규장각 소장본에는 “金溪”와 “西齋”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앞머리에 奉朝賀 柳厚祚가 붙인 서문이 있다.

여기서는 영조대 무신란을 “湖西의 亂”으로 규정하였다.

鄭希亮이 安陝에서 일어난 것은 호서에서의 기병에 호응한 것이며, 그것을 누르기 위해 영남의 父老들이 모두 擧義하였다고 하는 등 영남의 지역적 입장을 정당화하였다.

권1~4는 의병이 일어난 지역별로 座目, 日記, 節目, 通文, 檄文, 書 등 그 지역의 의병에 관계되는 기록들을 수록하였는데 수록된 글의 종류나 형식 등에는 차이가 있다.

권1에는 안동 의병에 대한 기록을 앞세웠다.

<安東義兵軍門座目>이라 하여 大將 柳升鉉, 副將 權萬 이하 의병의 지도자들을 左 防將·右 防將·參謀·都書記·書記·整齊有司·司兵 都總·司兵有司·管糧 都總·管糧有司·出令 都監·軍官·別軍官·執操 旗牌 官·募兵 都監·募糧 都監·校任의 직책 별로 성명 및 개인 사항과 의병 사적 등을 정리 놓았다.

<三溪書院倡義座目>과 <道淵書院倡義座目>은 각 해당 서원에서 거의한 인물들에 대해 召募 都監·募糧 都監·軍門都 執禮·日記有司·書記·軍器都監 등의 직책별로 개인 사항을 정리 한 것이다.

<軍門日記>에서는 1728년 3월 15일에 청주에서 반란군이 기병한 일로부터, 4월 7일 영천에서 함께 전진할 것을 요청하는 통문이 왔으나 의병이 이미 해산해 있던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병의 활동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軍門節目>은 의병의 운영 방침과 행동 요령을 규정한 내용이다.

이어서 權德秀·權鼎揆·柳升鉉·權萬 등이 짓거나 三溪書院 道淵書院에서 발송한 通文 檄文이 6편 실렸으며, 號召使·上將軍 副將 등이 지역 士林 등에게 보낸 書가 3편 있다.

그 다음은 尙州의 의병에 대한 기록으로서 <尙州義兵軍門座目>에서 大將 孫景錫, 中軍 李麟至 이하 校任에 이르기까지 직책별로 해당자의 성명과 인적 사항을 정리하였는데 구체적인 직책명에는 위 안동의 의병과 차이가 있다.

뒤에 <軍門日記>가 있으며 절목은 안동의 것과 같고 이어 <軍令> <榜>이 수록되어 있다.

召募使와 玉城書院에서 발한 통문과 <誓軍中文>에 이어 本州·都巡撫使·安撫使 등에게 올린 報狀 3편이 있다.

禮安 의병에 대해서도 大將 李守謙 이하 公事員에 이르기까지의 <禮安義兵軍門座目>을 앞세우고 <軍門日記> <軍門節目> <檄文> <傳令>에 이어 안동 의병에게 보낸 答文을 수록하였다.

권2에는 正字 朴成玉이 대장이었던 醴泉 의병, 參議 羅學川이 대장이었던 榮川 의병, 察訪 李徵道가 대장이었던 順興 의병, 生員 權景濂이 대장이었던 豊基 의병에 대한 기록들이 대략 위와 같은 구성으로 실려있다.

권3에는 參奉 鄭葵陽이 대장이었던 永川 의병, 生員 申濂이 대장이었던 義城 의병, 幼學 吳三達이 대장이었던 英陽 의병, 유학 金至恒이 대장이었던 奉化 의병, 幼學 李思九가 이끈 眞寶 의병, 유학 高雲五가 대장이었던 龍宮 의병에 대한 기록들을 위와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수록하였다.

권4의 앞머리는 <別錄>으로, 앞에서 누락된 인물들의 인적 사항과 활동상을 수록하였다.

安東·善山·禮安·榮川·醴泉·寧海·河東의 인물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어 유학 權益衡이 대장이었던 新寧 의병, 幼學 趙得昇이 대장이었던 靑松 의병, 유학 申思日이 대장이었던 聞慶 의병, 郡守 李麟興이 대장이었던 咸昌 의병, 유학 朴尙素가 이끈 義興鄉校 의병, 幼學 洪處漢이 都摠이었던 軍威鄉校 의병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

慶州義將 生員 孫景杰, 河陽義將 幼學 許壕, 義興洪氏倡義都摠 유학 洪緯世에 대한 개인 사항과 활동 내용이 간략히 실렸다.

권5는 사건 이후 반란 진압과 경상도 의병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및 이 책의 간행에 대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먼저 傳旨로서 1728년 3월에 영조가 내린 <命嶺南上下道號召使傳旨>와 <命嶺南右道召募使>를 실었고 그 뒤에는 安撫使·號召使·召募使 등이 올린 장계가 5편 실렸다.

이어 1729년 5월의 安東 의병장 柳升鉉 등에 대해 포상을 논의한 내용으로부터 유승현과 權萬이 입시켰을 때의 것 등 筵說 5편이 있고, 그 뒤에 영조가 내린 <錄安東義兵將柳升鉉子孫傳教>가 있다.

疏錄에는 1788년 幼學 金鎮東 등이 <戊申倡義錄>을 바치는 상소와 그것과 결부된 <輦路上言>을 싣고 <禮曹回啓> 및 그에 따른 전교, 大臣의 獻議 내용, 다시 傳教, 정조가 상소를 올린 이들을 불러들였을 때의 筵說, 우의정의 건의 내용을 수록하였다.

戊申亂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전말을 정리한 공식 기록 <<勘亂錄>>을 비롯하여 <<戊申別騰錄>> <<戊申獄案抄>> 등의 여러 문헌이 있다.

특히 경상도의 의병에 대한 기록으로 <<慶尙道戊申倡義事蹟>>(1책)이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으므로 서로 대조하면서 이용할 필요가 있다.

정의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 때 경상도에서 일어난 의병에 대한 사적(事迹)을 모아 기록한 책.

편찬/발간 경위

表紙書名은 '倡義錄', 版心題는 '戊申倡義錄'이며, 書根題는 없다. 표제의 '戊申'은 1728년을 가리킨다. 표지 서명 하단에는 冊次가 '乾·坤'으로 표기되어 있다. 각 책 제 1면 우측 상단에는 '藏書閣圖書印'이, 그 아래에는 개인의 원형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체제 및 내용

본서는 모두 다섯 권으로, 권수에는 간행 경위를 설명한 柳厚祚(1798~1876)의 서문을 수록하였다. 이에 따르면, 무신란이 발발한 지 60년이 되는 1788년(정조 12) 국왕이 안동 의병장 柳升鉉(1680~1746)과 權萬(1688~1749)에게 관작을 내리고 관찰사에게 지시하여 도내 사적들을 모아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관찰사가 끝내 이 일을 성사하지 못하자 유생 신분의 李鎭東이 주도하여 각 읍의 기록을 모아 한 책을 만들어 국왕에게 상주하였다. 국왕은 대신들과 논의하여 이 책을 본도에서 간행하도록 하였으나 계속 간행되지 못하다가 유후조가 서문을 쓴 1874년(고종 11)에 간행되었다.

서문에 이어 권 1에는 「安東義兵軍門坐目」·「三溪書院倡義坐目」·「道淵書院倡義坐目」을 비롯해 상주와 예안의 의병 기록을, 권 2는 예천·榮川·순흥·풍기, 권 3은 永川·의성·영양·봉화·진보·용궁 등지, 권 4는 신령·청송·문경·함창·의흥·군위 등지의 의병 기록을 수록하였다. 권 5는 1728년(영조 4) 영조가 내린 「命嶺南上下道號召使傳旨」를 비롯해 按撫使나 號召使의 장계, 각종 筵說, 이진동이 1788년(정조 12)에 올린 「進戊申倡義錄疏」와 이진동을 위시한 연명자 명단 등을 수록하였다.

본서는 각 지역별로 유사한 방식으로 정리하였는데, 먼저 의병의 편제를 기록한 뒤 각 의병 진영의 일기와 軍門節目, 격문이나 보고 문건 등의 순서이다. 의병 진영의 편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개 비슷한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안동 지역을 예로 들면, 大將을 시작으로

副將, 左防將, 右防將, 參謀, 都書記, 書記, 整齊有司, 司兵都摠, 司兵有司, 管糧都摠, 管糧有司, 出令都監, 軍官, 別軍官, 執操旗牌官, 募兵都監, 募糧都監, 校任 등의 편제로 조직되었다.

특성 및 가치

1728년(영조 4) 무신란 당시 안동을 중심으로 경상좌도 사림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이다. 아울러 당시 경상도 지역 내에서 좌도와 우도가 무신란에 대해 각각 다른 대응 방식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경상우도에 속한 안음 지역에서는 鄭希亮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난 반면,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좌도는 의병을 조직해 반란군의 진압에 가담하였다. 이 밖에도 정조 대 對嶺南施策의 방향을 살필 수 있다.

1788년(정조 12) 4월 우의정 채제공(蔡濟恭)의 건의에 따라 무신란 때 의병을 일으킨 유승현(柳升鉉)을 이조참판에, 권만(權萬)을 이조참의에 추증하는 한편 경상 감사에게 도내의 사적을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선 3월 정조는 무신란 진압 60주년을 기념하여 최규서(崔奎瑞), 오명항(吳命恒) 등에게 치제하도록 한 바 있는데, 유승현 등의 추증 역시 이것의 연장선상이었다. 정조의 이런 조치는 채제공을 우의정에 제수하면서 동시에 영남 남인들을 정치적으로 포섭하려는 의도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나 경상 감사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응을 하지 않자, 이진동이 주도하여 도내 유생들의 도움을 받아 13개 고을의 사적을 모아 1책으로 편집하여 같은 해 12월 국왕에게 제출하였다. 이때 이진동 등은 영남 남인들의 숙원인 조덕린(趙德隣) 등에 대한 죄명의 탕척(蕩滌)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진동이 제출한 책자는 일부 내용만 간추려 인쇄해서 도내에 배포하도록 하였으나, 당대에는 바로 간행되지 않다가, 1874년(고종 11) 경에유후조의 서문을 받아 간행되었다.

내용

목판본이며, 5권 2책이다. 권 1~권 3까지는 지역별로 그 현황을 서술하였다. 권 1은 안동과 상주, 예안을, 권 2는 예천, 영천(榮川), 순흥, 풍기를, 권 3은 영천(永川), 의성, 영양, 봉화, 진보(眞寶), 용궁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 구성은 대체로 유사하다. 안동의 경우로 본다면 먼저 「안동의병 군문좌목(安東義兵軍門坐目)」이라 하여 의진(義陣)의 참여자를 직임별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안동의 의진은 대장 유승현을 위시하여 부장, 좌방장, 우방장, 참모, 도서기(都書記), 서기, 정제유사(整齊有司), 사병도총(司兵都摠), 사병유사(司兵有司), 관량도총(管糧都摠), 관량유사, 출령도감(出令都監), 군관, 별군관, 집조기패관(執操旗牌官), 모병도감(募兵都監), 모량도감(募糧都監), 교임(校任) 등으로 구성되었다. 지역 내 서원이나 향교에서 창의하여 별도로 의진을 구성한 경우에는 따로 서술하였는데, 「삼계서원 창의좌목(三溪書院倡義坐目)」과 「도연서원 창의좌목(道淵書院倡義坐目)」이 그 예이다.

좌목 이후에는 일자별로 관군과 의병의 활동을 기록한 「군문일기(軍門日記)」, 의진의 운영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군문절목(軍門節目)」을 수록하였다. 「군문절목」은 의병의 대상자, 군기의 조달, 군량 수송을 위한 말의 조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어 통문과 격문, 그리고 호소사(號召使)나 안무사(按撫使) 또는 다른 의진과 교류한 서찰, 또는 보고문인 보장(報狀)과 전령(傳令) 등을 수록하였다.

주 내용은 「경상도무신창의사적(慶尙道戊申倡義事蹟)」, 「호소사조덕린사적(號召使趙德鄰事蹟)」, 「소모사황익재사적(召募使黃翼再事蹟)」 및 별목(別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경상도무신창의사적」에는 안동, 상주, 예천 등 13개 고을의 의병 조직과 절목, 일기, 통문, 격문 등과 함께 군령, 전령, 방문(榜文)과 각 지역의 서원, 서당, 역원에서 보내 온 군량미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일기는 반란의 소식을 접한 3월 15일로부터 난이 평정된 뒤에 의병진을 파하는 4월 7일까지의 경과를 담고 있다. 호소사 및 소모사의 사적은 경상도 각 지역의 의병 조직 상황을 조덕린과 황익재가 각기 조정에 보고한 내용이다. 당시 안동의병장은 임동 무실 출신의 관인학자 류승현이었다.

권 4의 「별록(別錄)」과 「속별록(續別錄)」은 권 3까지의 내용에서 누락된 인물을 수록하였고, 「추록(追錄)」에서는 앞의 본문을 작성한 뒤에 의병 행적이 드러난 인물 중 근거가 명확한 경우를 대상으로 수록하였다.

「별록」에는 안동의 장령 김간(金侃), 사인(士人) 이재(李裁), 상주의 이만부(李萬敷), 권상일(權相一) 등을 수록하였다. 「속별록」에는 안동의 참봉 이협(李浹), 산산의 사인 김사진(金泗震)을 수록하였다. 「추록」에는 신녕(新寧), 청송, 문경, 함창 등과 향교 단위인 의흥향교와 군위향교의 의진을 수록하였고, 또한 경주의 의병장 생원 손경걸(孫景杰), 하양의 의병장 유학(幼學) 허호(許壕)와 「의흥홍씨 창의도총(義興洪氏倡義都摠)」이라 하고 유학 홍위세(洪緯世)를 수록하였다.

권 5는 「전지(傳旨)」, 「장계(狀啓)」, 「연설(筵說)」, 「전교(傳敎)」, 「소록(疏錄)」 등을 수록하였다. 「전지」에는 무신란 당시 국왕이 호소사에게 내린 전지를 수록하였고, 「장계」에는 안무사와 호소사가 국왕에게 올린 장계를 수록하였다. 이어 「연설」에서는 영남 의병의 포장(褒獎)과 관련된 국왕과 신료들의 논의 내용 또는 의병에 참여한 유승현과 권만(權萬)이 입시했을 때 국왕과의 대화 내용을 수록하였다. 「전교」에는 1788년(정조 12) 안동의 의병장 유승현의 자손을 녹용(錄用) 하라는 전교를 수록하였다. 「소록」에는 1788년 이진동 등이 본서를 국왕에게 올리면서 제출한 상소와 연명자를 나열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이진동 등의 상언과 이에 대한 예조의 회계, 대신의 헌의, 국왕의 전교 등을 수록하였다.

신내석(申乃錫)[1691~1742]은 1691년(숙종 17) 경상도 의성현 원흥(元興)[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도동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뛰어나, 이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진다. 13세 때에 부친이 병으로 위독하여 안동으로 직접 약을 구하러 갔는데, 낙동강 물이 홍수로 불어 건너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사공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자, 신내석의 효성에 감동한

사공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저어 강을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부모상으로 여묘 살이 할 때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조석(朝夕)으로 곡(哭)을 하였기에, 그 산을 효려산(孝慮山)이라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1728년(영조 4) 이인좌(李麟佐)가 난을 일으키자 의성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18세기 후반 안동에서 편찬한 『무신 창의록(戊申 倡義錄)』에 따르면, 신내석은 난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1728년 3월 2일 신렴(申濂), 신효(申孝) 등과 더불어 의성현의 여러 유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창의를 계획하고 동지를 격려했다고 한다. 신내석은 같은 고을 출신의 신덕기(申德沂), 이경재(李慶載), 박사윤(朴師尹), 박계령(朴桂齡)과 더불어 이 책의 「의성 의병 군문 좌목(義城 義兵 軍門 坐目)」에 수록되어 있다. 1742년(영조 18)에 사망하였다.

의의와 평가

『무신창의록』은 정조대 중반에 체제공을 우의정으로 임명하는 한편, 영남 남인들을 정치 기반으로 확보하려는 정조의 정치적 의도가 취해지면서 편찬된 책이다. 이진동은 본서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영남 지역 사람들의 의병 활동을 사실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영남 지역이 그동안 무신란과 관련해서 의혹을 받는 상황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본서 서문에서 유후조가 무신란을 “호서지란(湖西之亂)”으로 규정하여 영남 지역과는 무관함을 지적한 것은 이 같은 의도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류후조(柳厚祚)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은 류후조(柳厚祚 ; 1798~1876)가 편찬한 것으로, 1728(영조 4)년 이인좌의 난이 일어났을 때 경상도에서 기병한 의병들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이다. 난이 일어난 지 60년 후인 1788(정조 12)년에 정조가 안동의 의병장 류승현(柳升鉉)과 권만(權萬)에게 관작을 내리고 그 때의 사적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 등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이진동(李鎭東)이 도내의 인사들과 더불어 각 읍의 의병에 대한 기록을 모아 1책으로 편집한 후 국왕에게 바쳤다. 국왕은 대신의 논의를 거쳐 그 책을 경상도에서 간행하게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다가 19세기말에 이르러 간행된 것이다.

이진동이 원래 편찬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그가 정조에게 책을 바치고 조정에서 논의한 내용 등을 덧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책의 내용은 경상도창의사적, 호소사 조덕린사적, 소모사 황익재사적 및 별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가 되는 것은 경상도무신창의사적으로 안동, 상주, 예천, 순흥, 영천(永川), 의성, 예안, 풍기, 영천(榮川), 진보, 영양, 봉화, 용궁 등 13개 지역의 창의사적이 수록되어 있다. 각 지방의 창의사적의 내용은 의병의 조직상황과 활동을 규정한 절목, 의병의 조직과정과 난의 경과를 기록한 일기, 의병조직에 참여를 호소하는 통문(通文), 격문(檄文) 등으로 되어 있다. 그밖에도 군령(軍令), 전령(傳令), 방(榜)과 의병의 군량지원을 위해 각 지역의 원(院), 서당(書堂), 역원(驛院) 등에서 보내온 쌀, 사환(使喚) 등의 구체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절목과 일기로서 절목은 장정의 의병참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병기피자는 엄한 군율(軍律)로 다스리고 있다.

일기의 내용은 3월 15일부터 난이 평정되어 의병을 파하는 4월 7일까지의 난의 발생과 의병조직, 통문의 수발, 난의 진행 동태를 수록하고 있다. 특히 순흥, 영천 등의 일기에는 관찬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난의 진행과정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안음(安陰), 거창(居昌)을 근거로 난을 일으킨 정희량(鄭希亮) 등에 대한 보고 기록이 있다. 호소사 조덕린사적, 소모사 황익재사적은 경상도 각 지역의 의병호소와 의병조직을 중앙에 보고한 내용이며, 별록은 『감란록(勘亂錄)』 및 읍지 등에서 관련 기사를 옮겨 적은 것으로 안동, 상주, 선산, 예안, 영천, 예천, 영해, 하동 등지 사인(士人)들의 활약상에 대한 것이다. 이 책에 의하면 의병을 조직한 자는 전관직자(前官職者)나 또는 지방의 유생(儒生)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향교, 서원, 서당 등에서 물량과 인력을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류후조의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재가(載可), 호는 매산(梅山)·낙파(洛坡),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류성룡(柳成龍)의 8대손이다. 1858(철종 9)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부호군(副護軍) 이조참판·공조판서를 거쳐, 66(고종 3)년 우의정에 이르렀다. 이해 주청사(奏請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중국에 와있는 서양인들의 동태를 보고하였다. 67년 좌의정에 올랐으며, 72년 중추부판사로 퇴임하고 봉조하(奉朝賀)가 되었다.

참고문헌

- 『무신창의록(戊申倡義錄)』
- 「정조대 탕평정국의 군신의리 연구」(최성환,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9)
- 「정조조의 영남만민소」(이수건, 『교남사학』1, 영남대학교 국사학회, 1985)
- 국립중앙도서관(www.nl.go.kr)

[네이버 지식백과] [무신창의록](#) [戊申倡義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의성지역 창의록 원문발취

(義城義兵軍門坐目)大將 (의성의병군문좌목)대장

生員申濂[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五世孫壬辰倡義贈承旨佉玄孫丁卯斥和扈聖功

신렴[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오세손임진창의증승지흠현손정묘척화호성공

臣修撰贈都承旨達道曾孫學識淹博踐履純正事親至孝變初慨然以忠義激勵約束既定旁邑章甫飛文願從糾率四邑義旅誓死討賊後以忠孝行誼道啓贈持平有遺集]

(義城義兵軍門坐目)軍門都摠 군문도총

宣傳官金履中[주:安東人進士光粹五世孫素卓榮有大節擊劍舉義誓以一死官司直有遺稿]

(義城義兵軍門坐目)參謀 참모

進士李秀泰[주:永川人監司光俊玄孫參判民寅曾孫文章華瞻名重一時變初慷慨赴義規畫方略諭告文移辭嚴義正屢登薦剡有遺集]

幼學南胤綱[주:英陽人戶參贈領相敏生后壬辰勳錄樞玄孫通禮夢賚孫孝友出天有文學志行聞變慷慨與子聖運并赴義陣]

幼學金履瑞[주:安東人壬辰義將士元玄孫府使聖佐子風儀魁偉智慮綜密]

(義城義兵軍門坐目)都書記 도서기

幼學申斗星[주:鵝洲人按廉使祐后贈左承旨夢得玄孫有志節能文詞變初與諸族齊聲舉義往復于甥姪安東義將柳升鉉商確機務條定約束]

신두성[주:아주인안렴사우후증좌승지몽득현손유지절능문사변초여제족제성거의왕복우생질안동의장류승현상학기무조정약속]

幼學李秀春[주:永川人監司光俊玄孫參判民寅曾孫以文學行誼屢登薦剡變初慷慨入縣激起義旅檄文狀牒多出其手大書義陣三條軍法以勵士衆有遺稿]

幼學李仁濬[주:全州人溫寧君程后處事果毅文雅著稱]

生員申震龜[주:鵝洲人壬辰宣武扈聖功臣承旨贈吏參之悌玄孫正言弘望曾孫天資卓榮文章瞻博時遊太學聞變促歸歷所親縣宰指畫防守糾率門族檄起鄉人首事倡義有遺集]

신진구[주:아주인임진선무호성공신승지증리참지제현손정언홍망증손천자탁락문장섬박시유태학문변촉귀력소친현재지화방수규술문족격기향인수사창의유유집]

幼學任爾載[주:豐川人西河府院君子松后右尹勳玄孫]

(義城義兵軍門坐目)司兵都摠 사병도총

幼學李秀達[주:永川人監司光俊玄孫湖堂民成曾孫通經博學有大節軍門紀律多所倚重]

幼學申天壽[주:鵝洲人按廉使祐后贈承旨夢得五世孫剛健有膽略率門族家僮即赴義]

신천수[주:아주인안렴사우후증승지몽득오세손강건유침락술문족가동즉부의]
幼學徐泰封[주:達城人制處使沈后]

(義城義兵軍門坐目)整齊有司 정제유사

幼學權斗正[주:安東人壬辰勳錄判官希舜玄孫丁卯義將守經曾孫奮忠赴義有遺稿]
幼學金履吉[주:履中第六弟稟質剛明處事綜密]

(義城義兵軍門坐目)出令有司 출령유사

幼學金履模[주:安東人壬辰義將士元玄孫德器宏厚蔚有人望]

(義城義兵軍門坐目)管餉都摠 관향도총

幼學申德濟[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五世孫壬辰倡義贈承旨伋玄孫丁丙義將察訪適道曾孫器量宏偉處事周詳爲時所推聞賊陷城有三首詩]

신덕제[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오세손임진창의증승지흠현손정병의장찰방적도증손기량공위
처사주상위시소추문적함성유삼수시]

幼學申德沂[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五世孫壬辰義將監察伋玄孫器局卓犖有文學節行]

신덕기[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오세손임진의장감찰심현손기국탁락유문학절행]
幼學李慶載[주:碧珍人碧珍將軍恩言后天資卓異有孝友文行奮身赴義條約嚴正有遺稿]

幼學朴師尹[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參議榮春玄孫有學行]

幼學申乃錫[주:鵝洲人參奉元福玄孫文學孝友親喪廬墓變初發文倡義激勵同志有遺稿]

申乃錫[주:아주인참봉원복현손문학효우친상려묘변초발문창의격려동지유유고]
幼學朴桂齡[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壬辰倡義訓判茂先玄孫]

(義城義兵軍門坐目)組練都摠 조련도총

幼學李東白[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有文行智略聞變赴義]

幼學李萬葉[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篤志力學長於經畫變起奮不顧身協贊戎務有遺稿]

(義城義兵軍門坐目)日記有司 일기유사

幼學申震標[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六世孫丙子斥和掌令悅道玄孫文詞膽博見推鄉隣]

신진표[주:아주인호증참의원록록세손병자척화장령열도현손문사섬박견추향린]

幼學金萬應[주:安東人壬辰義將士元五世孫筆翰如流材智膽敏]

幼學徐學會[주:達城人制處使沈后]

幼學申聖龜[주:震龜從弟沈深簡重練達機務變初與震龜隨叔父叔筵同時學義]

신성구[주:진구중제심심간중련달기무변초여진구수숙부숙정동시거의]

幼學李德龍[주:秀春從子以孝友文學有士望變初隨叔父倡義贊畫條約]

幼學權鼎重[주:安東人壬辰勳錄判官希舜五世孫丁卯義將守經玄孫]

幼學金鍾應[주:履瑞子器度豪邁練熟事務]

幼學丁賦天[주:羅州人司直致瑞六世孫有文行]

(義城義兵軍門坐目)軍官 軍官

幼學申淳[주:鵝洲人丙子斥和掌令悅道曾孫膽略過人慮事精詳]

신효[주:아주인병자척화장령열도증손담락과인려사정상]

幼學南聖民[주:胤綱從子]

幼學南聖運[주:胤綱子]

幼學申德滄[주:義將從弟慷慨有志□變初□妻子募丁壯與義將誓死赴陣]

신덕형[주:의장중제강개유지□변초□처자모정장여의장서사부진]

幼學宋儒益[주:恩津人左參贊麒壽五世孫]

幼學金是錡

(義城義兵軍門坐目)事知旗牌官 사지기패관

幼學玉景輝[주:宜寧人清白吏校理沽后]

幼學宋儒徵[주:恩津人左參贊麒壽五世孫]

(義城義兵軍門坐目)組練將 조련장

出身金禹鼎[주:義城人丙子殉節僉正燁曾孫練達兵略膂力過人以軍門積勞授副司直]

(義城義兵軍門坐目)募糧都監 모량도감

幼學申器模[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六世孫丁丙義將察訪適道玄孫有孝友文行]

신기모[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세손정병의장찰방적도현손유효우문행]

幼學蔣德夏[주:牙山人府使處勇八世孫篤志力行有材資器局]

幼學申德潛[주:以泳從弟素志忠義變初拜家廟訣妻子與以泳灑涕誓衆其所募糧尤多]

신덕잠[주:이영종제소지충의변초배가묘걸처자어이영쇄체서중기소모량우다]

幼學南晟夏[주:英陽人參奉樞曾孫司果昌賚子材器英邁學識通敏義將許以可當大任]

幼學金履亨[주:安東人壬辰義將士元玄孫約束嚴明料理公平]

幼學趙光珪[주:漢陽人]

幼學金震應[주:安東人進士光粹六世孫在義陣臨機善辦應務有餘]

幼學朴世平[주:潘南人平度公崑后校尉瑞玄孫有遺稿]

幼學李曄[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事母至孝三年居廬屢入繡薦變初兄弟赴義有遺稿]

幼學李達徵[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文詞行誼見推一鄉大耄同樞]

幼學朴慶傳[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壬辰倡義訓判茂先玄孫]

幼學金益礪

幼學朴柏齡[주:咸陽人壬辰倡義訓判茂先玄孫]

幼學徐萬春[주:達城人制處使沈后壽爵僉樞]

幼學朴禧齡[주:咸陽人壬辰倡義訓判茂先玄孫]

幼學具休徵[주:綾城人文節公鴻后丙子斥和教官諱曾孫有文學孝行]

幼學李秀載[주:永川人監司光俊玄孫參判民寅曾孫文學行誼爲時所推]

幼學申淵[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五世孫]

신연[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오세손]

幼學申德泓[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五世孫壬辰義將監察佖玄孫]

신덕홍[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오세손임진의장감찰심현손]

進士李秀時[주:永川人監司光俊玄孫湖堂民成曾孫器局宏偉文學博雅]

幼學任爾道[주:豐州人西河府院君子松后右尹勳玄孫]

幼學朴世欽[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防禦使以樟孫]

幼學申天旭[주:天壽弟天性剛直文詞夙就與兄天壽誓死赴義有遺稿]

幼學申濡[주:鵝洲人孝贈參議元祿五世孫壬辰義將監察佖玄孫器局宏深籌畫嚴整]

신유[주:아주인효증참의원록오세손임진의장감찰심현손기국굉심주화엄정]

幼學申世標[주:震標弟寬厚忠信人稱二難]

幼學申天潤[주:鵝洲人贈承旨夢得五世孫雄勇有智略與弟天決同赴義]

신천윤[주:아주인증승지몽득오세손응용유지락여제천협동부의]

幼學朴師誠[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

幼學李景[주:曄弟天品奇偉文詞膽富技藝出衆兄弟一時赴義]

幼學申叔筵[주:震龜叔父清介疏爽有文詞士望與從子復龜震龜聖龜從曾孫道三同舉義]
신숙징[주:진구숙부청개소상유문사사망여종자복구진구성구증증손도삼동거의]

幼學申汝篋[주:鵝洲人贈承旨夢得玄孫神采凝偉志行雅潔]
신여궤[주:아주인증승지몽득현손신채응위지행아혈]

幼學李萬蕃[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聰明剛直篤於孝友屢登薦剡]

幼學南天興[주:英陽人戶參贈領相敏生后壬辰勳錄樞五世孫通禮夢賚曾孫]

幼學申復龜[주:震龜兄器宇嚴重文詞著稱變初隨叔父率弟姪慷慨舉義]
신복구[주:진구형기우엄중문사저칭변초수숙부슬제질강개거의]

幼學李天裕[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聰穎力學奮於忠義]

幼學金鼎應[주:安東人壬辰義將士元五世孫材器夙就優於幹務]

幼學申以悌[주:鵝洲人按廉使祐后直長鉉曾孫]
신이제[주:아주인안렴사우후직장현증손]

幼學申汝矩[주:鵝洲人直長鉉曾孫]
신여구[주:아주인직장현증손]

幼學朴震亨

(義城義兵軍門坐目)募兵都監 모병도감

幼學申德浩[주:鵝洲人丁丙倡義大將察訪適道曾孫進士塚孫孝友文行見推鄉隣有遺稿]
신덕호[주:아주인정병창의대장찰방적도증손진사채손효우문행견추향린유유고]

幼學李燾

幼學金履成[주:安東人進士光粹五世孫勇力出衆智略兼人]

幼學孫元錫[주:慶州人吏判景節公仲噉后]

幼學李天一[주:眞城人松安君子脩后慷慨有大節變初與諸族七人同聲赴義]

幼學金胤昌

幼學朴喬齡[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參議榮春玄孫]

幼學李聖時

幼學丁斗天[주:羅州人司直致瑞六世孫聞變赴義]

幼學任泰國[주:豐川人西河府院君子松后右尹勳五世孫有□行]

幼學申瀚[주:濡從兄氣宇峻整志行雅潔兄弟同時赴義大耋同樞]
신한[주:유종형기우준정지행아결형제동시부의대질동추]

幼學申泰龜[주:震龜弟疏爽簡亢不隨人俯仰變初隨叔父二兄首謀義舉效死奮勵]
신태구[주:진구제소상간항부수인부양변초수숙부이형수모의거효사분려]

幼學朴師中[주:咸陽人參議榮春玄孫]

幼學申應雲[주:鵝洲人贈承旨夢得玄孫善屬文]

신응운 [주:아주인증승지몽득현손선속문]

幼學申天浹 [주:天潤弟素有文行規畫方略]

신천협 [주:천윤제소유문행규화방략]

生員申道三 [주:震龜從子事親至孝有王祥之行方舉義出家僮三十領所屬七面軍同赴陣]

신도삼 [주:진구종자사친지효유왕상지행방거의출가동삼십령소속칠면군동부진]

幼學金河應 [주:安東人壬辰義將士元五世孫妙年材器見推鄉隣]

幼學申德澄 [주:德沂兄文詞博洽爲時所推與弟德沂德泓一時舉義]

신덕징 [주:덕기형문사박흠위시소추여제덕기덕홍일시거의]

幼學朴東元 [주:咸陽人按廉使成陽后丙子倡義判官夢琚玄孫直長文煒曾孫]

(義城義兵)軍門日記 군문일기

戊申三月二十二日聞湖西賊變○二十四日聞安陰賊變○二十五日 申濂申乃錫申淳等文告一鄉爲倡義計○二十六日聞安陰陝川賊次第陷城○二十八日鄉會于客舍西軒○二十九日士林齊會鄉校開坐明倫堂圈出義將 申濂文告列邑○安東倡義通文來到○三十日公事員李秀泰金履瑞來議諸般節目仍爲開坐差定軍門各任以條定十二節目輪告上下民人○前宣傳官金履中武略絕人慷慨奮發有張旻冒敵之心差都摠爲副將

四月初一日曉義將率諸生祇謁聖廟開坐于杏壇

具戎服北向再拜受軍禮畢盟于衆曰國事至此有淚無言今日之盟寧死勿渝咸應曰諾遂立三條軍法臨敵先退者斬違令失期者斬訛言惑衆者斬使都書記李秀春大書揭于門樓○抄定軍糧於校院各所○號召使來見軍門發向義興○朝後開坐杏壇議操鍊諸節○軍威義興比安三邑亦倡義而兵單力少將欲合勢之意通文來到使擇其邑之有能幹者各一人差定都摠掌其軍務其餘諸般任員各自差定○初二日各面募兵皆來到而獨所也羽谷氷山三面未到○禮安倡義通文來到○答安東禮

安通文○初三日所羽氷山三面軍次第來到各面軍糧亦輸到使都摠檢察○軍威倡義所儒生 洪處 漢

李台俊等來見請受節制贍付召募節目○義興
倡義所文報來到卽爲回諭○五寺首僧來納旗鼓
槍劍等物○初四日上將與都摠及諸參謀以下共
議軍務設陣于杏壇下○安東檄文永川通文軍威
南溪書院私通義興鄉校私通來○初五日習陣○
與軍門諸任議定行軍節次○禮安私通比安私通
來○初六日發軍將向賊陣義將坐明倫堂點檢軍
器整頓部伍草誓文告于軍中亦以此意馳諭軍威
義興比安三邑使之齊會于桃李院浦邊○初七日
因安撫使關姑緩師期呈書于安撫號召兩使移檄
軍威義興比安倡義所使之留待○巳時聞賊兵敗
滅○初八日因兩使回關遂罷義陣

(義城義兵)軍門節目 군문절목

[주:同安東節目]

(義城義兵)誓軍中文 서군중문

嗚呼吾等幸逢聖世沐浴弘化其於忠君死長之
義講之素矣值此綠林嘯聚之變可無倡義赴難之
舉乎兇徒之假息久矣吾黨之請討晚矣與其忍恥
而偷生曷若捐軀而取義與其畏賊而避鋒曷若敵
愾而樹勳父兄之衛頭目之捍秉彝之天臣子之職
也天地昭布日月照臨凡我同盟之人齊心一力張
脊冒刃上以酬聖朝三百年培養之澤下以伸吾
南七十州忠義之氣然後庶幾無負於受中以生之
責矣洛水滔滔日夜于東如所否者有如此水

(義城義兵)檄一鄉文 격일향문

國運不幸逆豎搆亂湖西餘孽延及江右殺掠我人
民震驚我君父此實神人之所共憤覆載之所不

容而爲嶺南人士者尤當痛心疾首矢不與此賊一日俱生者也濂年迫八十朝夕入地猶有一段忠憤之心未盡消磨妄欲與同志者爲國效一死伏願僉君子勿爲全軀保家之計卽起赴義千萬幸甚生爲烈士死作英魄勉之勉之

유각면모병모량도감문
(義城義兵)諭各面募兵募糧都監文

嗚呼國事至此言之痛心老物猥當重任不克效力是懼所恃者秉彝同得之天自我發之而諸公所學之得力正在此日耳惟我諸君出入里閭開陳利害以兵以糧多方召募各奮沫[주:沫]血之志亟濟燃眉之急言所不盡開列于後各宜照詳施行

회유의흥창의소유생문
(義城義兵)回諭義興倡義所儒生文 [주:義興倡義坐目見下]

僉君子不謀同辭不勸自激糾合同志有此咨叩承來不勝欽歎濂雖毫矣敢不奉以周旋少酬僉君子降志從人忘身殉國之至意乎召募節目姑先錄呈組練凡百續此更告謹諭

회유군위창의소유생문
(義城義兵)回諭軍威倡義所儒生文 [주:軍威倡義坐目見下]

本縣以斗小之邑召募兵糧不爲不多苟非僉君子忠憤積中有以感動人者何以及此惟願一心靡懈多方召募益奮見義之勇亟效同聲之應千萬幸甚

이격군위의흥비안문
移檄軍威義興比安文 [주:比安倡義坐目缺]

義兵將爲知委事賊變至此義不可聚衆觀變本陣軍兵以今初六日發行計料比安則初七日來會于桃院初八日并發義興軍威則初八日等待于孝嶺倉以初九日四邑義兵一時前進而軍兵糧餉若有躓蹙不及之患則當該都摠當依軍律處斷嗚呼凡

我同志之人咸聽布告之辭念國事而揮涕有死之心籲爾衆而同仇所重者義其各思奮毋敢違律

답안동의진문
(義城義兵)答安東義陣文

今此逆徒吠日之變實千古所未有凡在血氣之類孰不奮激而思討也哉生等亦已上議父兄下倡子弟出萬死不顧一生之計載興義旅且薦將領將剋期赴賊而自惟兵孤力單未足以辦事功於倉卒今承盛諭聲勢有助不覺勇敢之倍前也才聞陝川餘孽蹙於官軍巨魁見擒群醜散落茲豈非宗社無疆之休也第念此賊異諸外寇雜糅民間竊發無常不可以其勢之暫縮弛憂惟我同志各自勉勵蓄銳伺發隨事相報以遂同仇之義千萬幸甚

보안무사상
(義城義兵)報安撫使狀

義城義興軍威比安義兵將爲牒報事今此畿湖之賊實吾東方所未有之極變而一種兇孽又出嶺右則爲今日嶺南之士民者所共奮憤羞恥矢不與此賊俱生者也本縣生徒不量瑣力議父老倡子弟連結附近糾合義旅以爲前進勦賊之計節到付使關內小醜狂賊本不足畏官軍四面進討四賊先已授首都巡撫使大軍今已踰嶺摧枯拉朽非可待於義兵之效力各處士夫宜知此意姑勿輕動王靈遠惕[平:天威丕振]亂領妖腰次第芟刈零賊餘孽行當盡劉顧此不彎弓不知兵之白面生徒固不足有無於其間而惟是生長禮義之鄉濡染父師之訓粗知順逆之分各奮忠義之心南首死敵誓有以歸報若祖若父於地下而使關曉諭若是勤摯節制進退所當惟命姑緩師期蓄銳伺發設施形止爲先牒報

